

四柱와 體質에 의한 性格把握과 健康

장동순, 신미수, 김혜숙, 최혜선, 하도훈*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육주학당

Tel : 042-821-6677

E-mail: p_dsjang@cnu.ac.kr

Analysis of Personal Character and Health by Birth date and Constitution

Dong-Soon Jang, Mi-Soo Shin, Hey-Sook Kim, Hye-Sun Choi
Dep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

요약

동양의학의 오행체질이론과 사주이론을 결합하여 사람의 감성이나 성격 파악과 섭생이론을 살펴 보았다. 체질과 사주를 결합하여야 하는 이유는 체질은 오장육부에서 나오는 오행기운에 대한 정보를 주는 데 반하여 사주나 운기는 형이상학적인 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양쪽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면 사람의 성격이나 감성 그리고 치병의 강도나 기간을 결정하는 데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얼굴 형상에 의한 물질적인 체질은 일반적인 성격규정에 도움을 주며 사주는 보다 구체적인 성격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그 외에 건강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람의 성격을 거론할 수 있다.

keyword : 음양오행, 사주, 체질, 성격, 얼굴 형상

서론

동양의 자연사상은 자연의 이치를 象數理적으로 해석한 주역과 자연의 순환 기전을 동적으로 파악한 음양오행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이론체계는 간이나 뼈와 같은 인체 생리 그리고 팔이나 수수 등과 같은 물질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인의예지신이나 노회사비공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사유나 기의 영역까지도 포함한다. 그러기에 서양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중에서 음양오행의 이론은 황제내경에 일관되게 나타나있듯이 자연현

상, 인체생리, 그리고 운명이나 運氣에 기본이 되는 이론임에는 의심이나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동양의 오행이론을 물질적으로 파악하였을 때 오장육부의 대소를 논하는 체질이나 음식의 섭생 이론이 나올 수 있으며 형이상학적인 정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을 때 사주명리의 사주팔자와 대운 등에서 음양오행의 기운의 강약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운기학에서 그 해나 계절 그리고 하루 중의 시간대 등 절기나 시간에 변화에 의한 기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체질과 사주명리 등은 운기, 풍수, 섭생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기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사주팔자와 오행체질이론을 동시에 고려한 의역학적인 관점에서 음식의 섭생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사람의 사주팔자나 대운 등에서 특정한 기운의 과다는 물질적인 오장육부의 강약이나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섭생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본 론

음양오행 체질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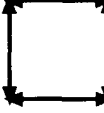

음양오행이론은 음양이론과 분류 그리고 음양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오행이론도 오행의 성질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시작으로 오행분류 그리고 상생상극의 이론이 그 기본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행이론에 기초하면 사람의 얼굴형상에 따른 오장육부의 대소를 판단하는 오행체질이론으로 쉽게 이론을 전개할 수 있다.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첫 번째로 체질 분류이다. 체질분류

란 한마디로 몸 속에 있는 오장육부의 상대적인 대소를 인체를 해부하여 보지 않고서 아는 방법이다. 체질분류에는 동무 이제마 선생의 사상체질, 권도원 박사의 팔체질, 인도의 아유르베다 체질 등 여러 체질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음양오행체질을 언급한다. 그 이유는 배우기 쉽고 이론이 간단하고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동서양이나 민족적 선호 등에 따른 편견은 없다. 음양오행체질보다 더 쉽고 일반적인 체질론을 제시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이 누구에게든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간단히 음양 체질만을 거론한다든지, 사주의 운기 체질을 일반화 한다든지 또는 불교의 지수화풍공의 체질을 제안할 수도 있다. 물론 유전자 지도 해석에 의하여 혈액형과 같이 그 사람에게 고유하며 오장육부의 대소를 나타내는 체질 판단법이 나타난다면 그것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음양오행이론의 일반성에 비추어 볼 때에 음양오행이론의 가치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음양오행체질의 기본은 오행의 속성에 따른 성질에 기초하여 사람의 얼굴모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오장육부의 대소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질에 따른 얼굴의 형상은 황제 내경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표 1에

[표 1] 얼굴형에 따른 큰 장부와 작은 장부

五行	木	火	土	金	水
속성	緩	散	固	緊	軟
물리적 의미	따뜻한 기운	폭발적 기운	끈끈한 기운	긴장시키는 기운	차고 미끄러운 기운
얼굴형					
큰 장부	간장 담낭	심장 소장	비장 위장	폐장 대장	신장 방광
작거나 병이 나기 쉬운 장부	비장·위장 폐장·대장	폐장·대장 신장·방광	신장·방광 간장·담낭	간장·담낭 심장·소장	심장·소장 비장·위장

체질에 따른 얼굴 형상과 오장육부의 대소 관계를 정리하였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체질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 경우에는 체질 분류가 틀린 것이 아니고 체질 분류가 가능하지 않은 다섯 개의 체질이 골고루 섞인 오행 표준형에 가까운 경우이다. 분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많을 수도 있다.

사주이론

사주는 천간 10글자와 지지의 12글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60갑자의 음양오행의 기운의 균형과 흐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 건강 성격 등을 예측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사주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한다. 단지 가장 중요한 것은 천간합의 의미로서 지지의 충, 삼합 등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것만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간합에 있어서 甲己合土, 乙庚合金, 丙辛合水, 戊癸合火, 丁壬合木 등의 내용이 나온다. 지합 또는 육합에 있어서는 子丑合土, 寅亥合木, 卯戌合火, 辰酉合金, 巳申合水, 그리고 午未合은 다른 오행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위의 간합과 지합의 결과를 살펴보면 병신합수나 사신합수와 같이 비슷한 합을 하는 것도 있는 데 반하여 다른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간합과 지합의 차이는 천간과 지지의 음양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천간의 합이 이론적이고 원칙적이라면 지지의 합은 보다 물질적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의하여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이야기를 전개하기 전에 양간과 음간의 물리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천간 지지의 오행 중에서 火의 기운을 상징하는 것은 천간의 丙丁 火와 지지의 午巳 火일 것이다. 이러한 4개의 화의 기운은 천간과 지지에서 각각 음양으로 다시 구분된다. 천간의 병은 양화이고 정화는 음화이다.

그리고 지지의 오행은 양화이고 사화는 음화이다. 유사하게 木의 기운도 천간의 甲木은 양목, 乙木은 음목이며 지지의 寅木은 양목, 卯木은 음목이다. 이러한 천간과 지지의 오행에 따른 음양분류 중에서 가장 양다운 양의 기운은 천간의 양(갑목)일 것이며 가장 음다운 기운은 지지의 음(卯木)일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음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고전적인 질문에 접하게 된다. 음양의 특징은 물론 잘 알려져 있다. 양은 밝고 크고 강하고 이에 반하여 음은 어둡고 작고 부드럽다는 것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기에 일반적으로 양목은 큰 나무 음목은 덩굴이나 풀 등을 의미한다. 양토인 무토는 크고 높은 산이며 음토인 기토는 전답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목의 甲乙과 토의 戊己가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전후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甲戊과 戊甲을 같다고 놓았을 때 甲戊, 甲己, 乙戊, 乙己 4가지이다. 이러한 4가지의 조합에 대하여 갑기는 갑기합을 이루어서 갑기합토가 되는데 반하여 무갑이나 을기는 모두 沖이 된다. 그리고 乙戊(을무) 또는 戊乙(무을)에 대해서는 합이나 충에 대한 표현이 없다. 우선 간단히 무갑이나 을기가 충이 되는 것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은 둘 다 음이나 양으로 되어있으며 오행에 있어서도 상극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갑기가 합이 될 때 왜 토가 되며 을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만일 갑기를 해석함에 있어서 만일 갑을 큰 나무라고 해석한다면 큰 나무가 전답이나 평야에서 자라는 것을 갑기가 합하여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해석을 내린다면 을목은 작은 나무나 초목이 기토에서 충을 일으킨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목기가 강하여서 토기를 극한다면 이것은 강하고 큰 나무인 갑목의 경우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갑

목과 을목을 정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한 다른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갑목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위로 크게 성장하고자 하는 기상이나 기운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큰 나무 자체로 정의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양은 강하고 씩씩한 형이상학적 또는 정신적인 기운이 많은 것이지 이것이 응고된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양을 정의하고 나면 이야기가 훨씬 이해가 쉽고 논리의 전개가 수월하여진다. 음의 기운으로서 물질과 물질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乙木과 己土는 강력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난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충돌이며 팔이나 식초와 같이 강력한 목기의 물질인 酸味の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 속이 쓰리게 만드는 현상인 것이다. 즉 얼굴이 긴 간이 큰 여자가 얼굴이 둥그랗고 고지식한 위장이 큰 여자와 충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물론 서로의 기운이 비슷하다면 오행의 상극의 이치에 의하여 기토는 을목을 당할 수 없다. 이것이 목극토나 을기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을기충의 과정을 통하여 나무는 커다란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땅이 너무 단단하거나 두텁거나 하여서 기토가 을목의 기운을 능가한다면 을목이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나오지 못하고 꺾어짐을 의미한다. 사주에서는 을목과 기토가 각각 하나씩인 경우에는 을목이 기토를 극하게 되나 기토가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 될 때에는 오히려 을목이 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갑기가 합하여진다는 것은 갑의 진취적인 기운이 토의 물질속에서 작용함으로써 토를 활기차고 생명력 있게 만드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땅속에 구멍을 뚫고 재를 그 속에 묻어 두었을 때 입춘이 되어야만 비로소 재가 목기의 힘을 받고서 땅위로 솟아오르면서 땅에 생명력을 주는 것과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봄날 천지에 충만한 따듯한 목의 기운이 땅에 새싹을 나오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새싹이 나오므로써 기토는 더욱 풍성하여지는 것이다. 이것이 甲己合化 土가 되는 것이다. 진취적인 기상이 있는 갑목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의 정원인 기토에 진취적인 큰 나무를 심는 경향이 많은 것이다.

그렇다면 목과 토가 만나는 경우로서 음목의 乙과 양토의 戊의 조합을 살펴보자. 이것은 음양의 관점에서 음목과 양토의 결합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음양오행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에는 양의 무토가 음의 을목에 의하여 목극토를 당하는 상황에 있다. 자고로 음양의 조화가 양이 음을 이끌되 실질적인 변화는 음에 의하여 완성됨을 고려할 때 양의 무토가 적극적인 을목에 의하여 극을 당함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결합은 일시적으로는 음양에 의하여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 결합은 와해될 수 밖에 없다. 이 상황은 자라나는 나무가 강력히 조여오는 기운과 일시적으로 서로 좋아 음양으로 화합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을목이 무토와 결합하여 물질적인 목을 보다 크게 형성하는 모양이 되기는 하였으나 결국은 무토의 기운이 와해되거나 을목의 나무가 압박당하는 괴로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음양의 결합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러한 파국을 빨리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인 기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목화토금수 오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이해를 다시 강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음양오행을 굳이 과학적인 언어로 정의한다면 “시공간에서 에테르와 같은 기본적인 소립자가 양자역학적인 생성 소멸운동과정을 할 때 일어나는 5가지의 순환 상태함수”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목은 부드러운 에너지로서 전진하는 기운이 있고, 화는 뜨거운 열기로서 폭발적으로 산화한다. 토는 끈끈하게 결합하려는 기운이 있어 중심점을 향하여 동그랗게 뭉치고 금은 순간적으로 결정을

이루기에 표면에서 결정을 이룬다. 그리고 수는 차고 연하여 아래로 흐른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볼 때에 무토의 한점을 향하여 조이는 기운은 을목의 뺏어나는 물질과 음양으로 결합은 하나 그 결합이 근원적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토에 해당하는 한여름의 무덥고 끈끈한 절기가 되면 나무들이 위로 성장을 하기 보다는 천기의 무토의 기운을 농축하여 곡식과 과일은 낱알과 과즙을 농축하고 살찌우는 것이다.

위에서 목기합화토가 뒹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사한 논리의 전개를 다른 천간함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乙庚合金은 긴장시켜 결정을 이루는 형이상학적인 금의 기운이 물질적인 뺏어나려는 부드러운 을목에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을목의 표면은 각질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각질을 형성하게 되는 것은 뺏어나는 기운이 있는 을목의 경우가 아닌 다른 오행의 물질인 경우에는 가능하여 보이지 않는다. 가을날 금기의 찬바람이 불게 되면 나무들이 성장을 멈추고 표면에 단단한 각질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은 또한 경금에 해당하는 미국사람들이 을목에 해당하는 정원의 잔디를 매우 확일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정리하는 금기를 보이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집안에서도 가부장적인 남편 밑에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을목의 아내가 남편의 규범 안에서 행동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집은 남편의 가부장적인 권위를 유지하는 집이 된다.

다음은 천간의 양토인 무토와 음수인 계수가 합을 이루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무토는 외부로 부토 조여오는 힘이고 계수는 그 안에 있어 무토의 기운에 순응하는 실질적인 물이다. 여기에서 순응한다는 의미는 압의 을무의 경우 을목이 저항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여 볼 때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인 상황은 처음에는 물이 어느 정도 압축이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는 압축된 반작용으로 폭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戊癸合金화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무토에 의한 압축과정이 단순

히 외곽에서 힘을 가하는 압축이라고 가정하였지만은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좀더 심오한 자연의 신비와 결합된 다른 경우가 있다. 그것은 동서양에 공히 존재하는 나선운동에 의한 압축이다. 구체적으로 황금나선운동이나 태극운동 등에 의한 선회압축이라고 한다면 이것의 의미는 더욱 확실하여진다. 황금나선운동에 의한 압축이 일어날 경우에 감소된 현열 등의 온도의 감소는 폭발적으로 발산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예로서 용오름 현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계지합이 정이 없다는 것이 합한 후 생겨난 불기운이 쉽게 소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은 丙辛合金화수인 경우이다. 신금은 바위나 금속의 쇠붙이다. 천간의 화 중에서 정화가 용광로 불과 같은 지엽적인 강렬한 불이라면 병화는 태양과 같은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으나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과 같은 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병화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내릴 때 양의 천간이 물질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기 보다는 형이상학적이거나 氣次元의 기운이라고 본 논문에서 정의한 陽干의 의미와 보다 잘 부합할 것이다. 병신합수의 경우에는 병의 태양과 같은 열기가 바위와 같은 신금에 활성화에너지를 제공할 경우 바위 안에서 冷酸化反應을 촉진시켜서 치너수와 같은 순수한 물이 생기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보통 병화로 나타내어지는 일본인들이 물질적인 금속(辛金)을 다루는 기술이나 검을 다루는 것에 능한 이치도 병신합수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장부의 강약에 따라 나타나는 얼굴의 모양에 의하여 결정되는 오행체질 궁합에서 남자가 역삼각형의 화형이고 여자가 사각형인 금형의 여자가 만날 경우 이는 매우 좋은 궁합으로서 매우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예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합이 좋은 궁합을 이루는 이유는 강한 결정을 이루려는 음의 기운인 신금을 先導할 만한 기운은 폭발적인 불의 기운인 병화뿐인 것이다. 여기

[표 2] 천간과 지지의 변화

천간합의 예				
天干 : 甲(1) 乙(2) 丙(3) 丁(4) 戊(5) 己(6) 庚(7) 辛(8) 壬(9) 癸(10)				
甲己合土	乙庚合金	丙辛合水	戊癸合火	丁壬合木

지지합의 예					
地支 : 子(11) 丑(12) 寅(1) 卯(2) 辰(3) 巳(4) 午(5) 未(6) 申(7) 酉(8) 戌(9) 亥(10)					
지지(지장간)	합과 冲	지지(지장간)	합과 冲	지지(지장간)	합과 冲
寅(戊丙甲)	陽木 寅亥合木 (지지합) 寅午戌火局 (3합) 寅申冲小陽相火	卯(甲乙)	陰木 卯戌合火 (지지합) 亥卯未木局 (3합) 卯酉冲陽明燥金	辰(乙癸戊)	陽土 辰酉合金 (지지합) 申子辰水局 (3합) 辰戌冲太陽寒水
巳(戊庚丙)	陰火 巳申合化水 (지지합) 巳酉丑金局 (3합) 巳亥冲關陰風木	午(丙己丁)	陽火 午未合共存 (지지합) 寅午戌火局 (3합) 子午冲小陰君火	未(丁乙己)	陰土 午未合共存 (지지합) 亥卯未木局 (3합) 丑未冲太陰濕土
申(戊壬庚)	陽金 巳申合化水 (지지합) 申子辰水局 (3합) 寅申冲小陽相火	酉(庚辛)	陰金 辰酉合化金 (지지합) 巳酉丑金局 (3합) 卯酉冲陽明燥金	戌(辛丁戊)	陽土 卯戌合化火 (지지합) 寅午戌火局 (3합) 辰戌冲太陽寒水
亥(戊甲壬)	陰水 寅亥合化木 (지지합) 亥卯未木局 (3합) 巳亥冲關陰風木	子(壬癸)	陽水 子丑合化土 (지지합) 申子辰水局 (3합) 子午冲小陰君火	丑(癸辛己)	陰土 子丑合化土 (지지합) 巳酉丑金局 (3합) 丑未冲太陰濕土

귀문관살												
年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귀문관살	酉	午	未	申	亥	戌	丑	寅	卯	子	巳	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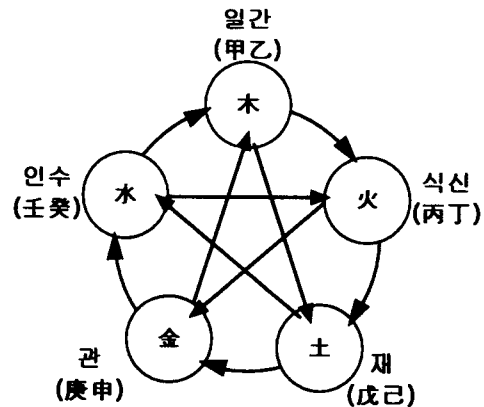
원진살												
年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원진살	未	午	酉	申	亥	戌	丑	子	卯	寅	巳	辰

서 만일 병화대신에 정화가 온다면 이 경우는 이야기가 틀려진다. 정화와 신금의 두 강력한 물질적인 기운의 만남은 “정신충”이 의미하듯이 화합이라기 보다는 강렬한 기운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병화와 신금이 만날 경우에 그 집안의 가풍이 수기가 나타나는 지는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병신합수가 변덕이 심하고 색정이 강하다는 것이 발생한 수기가 색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은 정입합목을 생각하여 보자. 정화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화롯불이나 용광로 불과 같이 물리적으로 뜨거운 불이다. 이러한 뜨거운 불이 불과는 상극이기는 하지마는 수분이 가득한 운무와 같은 기운을 만났다고 생각하여보자.

이 경우에 수분은 정화와 같은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하늘로 상승하는 아지랑이와 같은 목의 기운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듯하고 추진력이 있는 목기가 발생되는 것이다. 정입합목이 정에 흐르기 쉽다는 말은 이러한 목기의 발생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만일 정화와 임수가 아닌 화와 물이 만나는 다른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임수가 병화를 만난 경우나 정화가 계수를 만난 경우에는 각각 기운과 기운 또는 물과 불의 물질적인 충돌이 일어난 경우이므로 임수나 병화 또는 계수나 정화의 기운간에 상대적인 강약에 따른 충이 일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임수를 큰 바닷물이라고 한다면 정화로서 이러한 임수에 영향을 미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천간합의 이치로 보나 음양의 관점에서 보나 임수를 큰 바닷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갑목은 크게 뺏어 나갈려는 부드러운 기상이며, 경금도 긴장시키고자 하는 기운이지 무쇠덩어리가 아니며, 무토도 큰 바위산이라고 함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을목은 물질적인 초목이고 기토는 전답이나 들판이며 신금은 쇠붙이이고 계수는 차가운 물이다.

일간(본인)을 중심으로 한 성격 분석



사주의 성격 분석

1.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이 매우 많으면 신강한 사주로서 성격이 활달하고 적극적이며 지나치면 교만하다.
2.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이 부족하면 사려깊으나 지나치게 부족하면 소심하거나 잔피를 부리게 된다.
3. 일간과 같은 오행이 과다하면, 자기중심적이고 단순하며 지나치면 고집이 세다.
4. 일간이 생하는 오행이 많으면 호기심 많고 일을 찾아서 하며 식사를 잘 하고 지나치면 힘들게 고생만 하는 경우가 있다.
5.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 많으면 돈을 포함하여 자기가 다룰 수 있는 흥미있는 분야가 많다.
6.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 적당하면 절제를 잘 하고 조심성이 있으나 지나치게 많으면 전전공공하고 소심하여 일을 못한다.
7.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이 적당하면 매사에 도움을 많이 받으며 지나치면 노력을 하지 않고 게을러진다.

사주와 체질연구 사례

체질과 사주를 동시에 고려한 심리, 섭생 등에 대한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자.

[사례 1]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의 경우이다. 이 학생은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매우 진취적이다. 그리고 음식도 진한 자판기 커피를 맑은 향의 커피보다 좋아하며 매운 음식 또한 선호한다. 그리고 촛불이나 성냥불, 그리고 세미나용 레이저 포인트, 플래쉬 전지 등 각종 불장난이나 빛에 관계된 도구를 가지고 노는 놀이를 매우 좋아하는 취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사주와 체질의 자료를 살펴보자.

과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천간에는 계수와 신금이 떠 있어서 기토를 도와주는 불의 기운이 매우 필요한 사주이다.

비록 체질상으로 화의 기운을 강력하게 받고 있다고는 하나, 쓰고 단 자판기 커피에 의한 화토 기운의 보충과 각종 불기운에 의한 화의 기운의 도움이 전반적인 오행 기운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 학생은 잠을 잘 때 남향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며 방안의 조명도 붉은 색의 補助燈을 켜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직업도 화기가 많은 분야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추운 지방보다는 따뜻한 남쪽에 가서 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초등학교 6학년(여) 한국 태생 (음) 1989년 7월 7일 17시 30분	오행체질 : 화형	時	日	月	年	
		癸 酉	己 亥	辛 未	己 巳	
대 운	51	41	31	21	11	1
	정축	병자	을해	갑술	계유	임신

이 어린이의 체질만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불기운이 강한 화형의 체질이므로 체질적으로 모험을 좋아하는 성향 등은 잘 설명할 수 있으나 진한 커피나 불장난 등을 매우 좋아하는 성질을 설명하는 데는 부적합하다. 그러나 사주를 살펴보았을 때는 이러한 점이 쉽게 이해가 간다. 사주 기토 일주가 지지에 해(묘)미목국의 반합에 사유(축)금국의 반합을 가지고 있다. 즉 토의 일주가 강력하게 목의 기운

[사례 2] 다음은 서울의 C 대학에서 폐수처리 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 학생이다. 이 학생은 건강상으로는 다리나 근육에 쥐가 잘 나며 한편으로는 몸이 더워서 날씨가 추워져도 옷을 매우 얇게 입고 다닌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어려운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는 크게 재능을 보이고 있으나 장래의 연구 계획을 세우는 추진력을 요구하는 기획부서의 일은 매우 싫어한다.

서울C대 박사과정 학생(여) 한국 태생 (음) 1974년 6월 27일 11시 28분	오행체질 : 토형	時	日	月	年	
		丙 午	丁 亥	壬 申	甲 寅	
대 운	52	42	32	22	12	2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오	신미

이 사람의 체질만을 고려하였을 때 다리나 근육에 쥐가 잘 나는 현상은 이해가 된다. 즉 오행 체질이 토형이므로 목기와 수기가 제일 약하므로 간과 신장의 기운이 약하다. 간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다리나 근육에 쥐가 잘나고 찬바람이 불면 눈물이 잘 흐른다. 그러나 토형이라는 체질적인 인자만을 가지고 몸이 더워서 옷을 얇게 입고 다닌다는 사실과 연관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주를 살펴보자. 사주를 보면 토가 3개, 목이 2개, 금이 하나, 수가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水 중에서 천간의 임수는 일간의 정화와 결합하여 정입합 목국을 이루어 그나마 두 개의 水 氣運 중에서 하나가 사라졌다. 그러므로 대부분 사주가 목화로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므로 몸이 더운 것이 이해가 가며 사주가 덥기 때문에 전공이 水處理 工學을 하고 있는 점도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 사람의 추진력이나 장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부족한 기질은 체질이 토형이라는 점과 사주에서 식신 상관에 해당하는 토기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이해가 간다. 체질이 토형으로서 사주의 오행기운의 순환을 돕고 있는 점이 좋아 보인다.

결론

사주와 체질을 동시에 고려한 사람의 운명 성격 건강 등을 파악하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장동순, 동양자연사상의 탐구, 집문당, 아산연구보고서 (2001년)

김춘식, 오행생식요법, 도서출판 오행생식 (1998)

장동순, 동양사상과 서양과학의 접목과 응용 (1999)